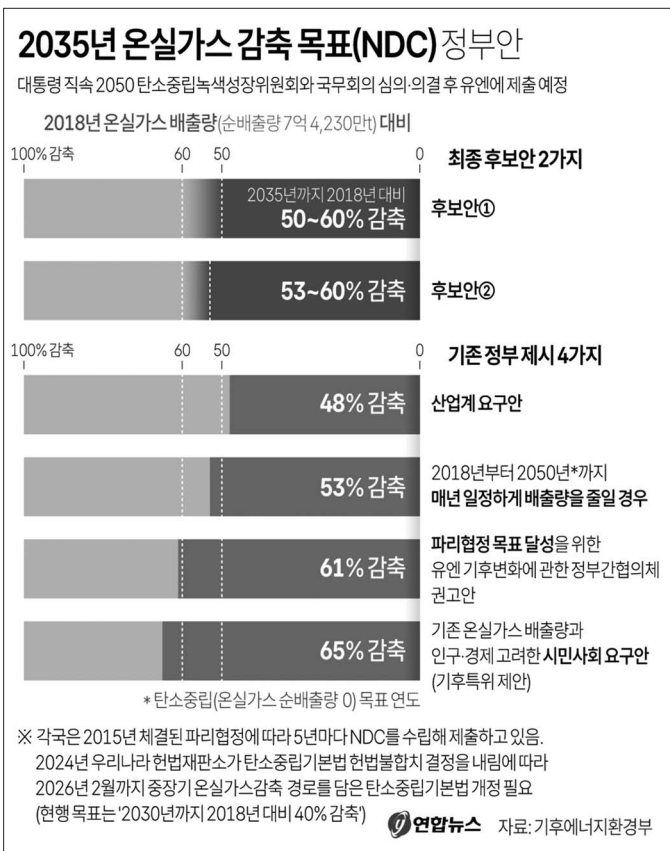


정부 NDC안에 산업계 패닉…“기업 경쟁력 훼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자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두 안은 하한선이 각각 50%와 53%로 설정됐는데 이는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모두 높다.

‘50~60%’·‘53~60%’ 감축 두 가지 안 제시 반도체·자동차·철강 “현실적 목표 설정해야”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또 이는 결국 고용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특별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주 유엔에 제출된다. 두 안은 상한선이 60%로 같지만,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가 제안한 48%보다는 높아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큰 투자가 불가피해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면서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마다NDC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은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내놓고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 할당량 설정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반도체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다량의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한 내 NDC 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제시된 NDC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

율을 30~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2035 NDC의 현실적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하고, 급격한 전환이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업계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 부담이 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48% 감축이 그나마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공정과세 실현 최선”

김학선 청장, 세무관서장 회의서
적극적 세정지원·탈세 대응 강조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김학선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체납 정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학선 청장은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컨설팅 위주로 납세자의 신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와 불공정 행위, 부동산 탈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신설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효 확인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제기를 돕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김학선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세금인심교실 운영, 기

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담회 실시 등 전납세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

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세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kwangnam.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벤츠 회장 만나다

다음주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반도체·배터리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주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난다. 그간 이 회장이 전 세계 주요 인사들 및 기업 수장들을 연달아 만나며 성과를 내 온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제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메르세데스-벤츠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칼레니우스 회장과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최주선 삼성 SDI 사장, 이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동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음 주 이 회장과 올라 회장의 만남을 통해 양사 간 기존 협력 범위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과 벤츠는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키 등에서 협력

중이다.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전기차 EQS에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으며 카 오디오에서도 협업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벤츠 주요 모델에 실물 키 없이 차량 잠금을 해제하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삼성월렛 디지털 키를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라 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잇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라 회장은 지난해 3월에도 비공개 ‘테크데이’를 통해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LG 주요 계열사들을 만나는 등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작년 서버 해킹 알고도 은폐 정황

정부 “엄중 조치”…작년 BPF도어 감염 서버 43대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올해 초 발견된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가 감염 사실을 은폐하며 SKT 사태 이후 당국이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업계를 전수조사한 과정에서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펌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와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쉘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불법 펌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펌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펌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펌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펌토셀은 지속해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펌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펌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으며 펌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펌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자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세청, 17개 압표상 기획 조사 신고 누락 물량 200억대 추정

국세청은 17개 전문 압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압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켓게터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 400여명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업자들이다.

안택수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압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압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이라고 밝혔다.

모두 30대 중반 남성인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는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상의 부당소득을 올렸다고 안 국장은 설명했다.

이들 17개 업자가 신고누락한 압표 물량은 최소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4만건 이상 입자권을 되팔아 정가의 최대 30배의 폭리를 취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은행, 내년 한국 성장률 상향

평균 1.9%…한은 전망보다 0.3%p 높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 1.9%, UBS는 1.8%, 바클리는 1.7%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가

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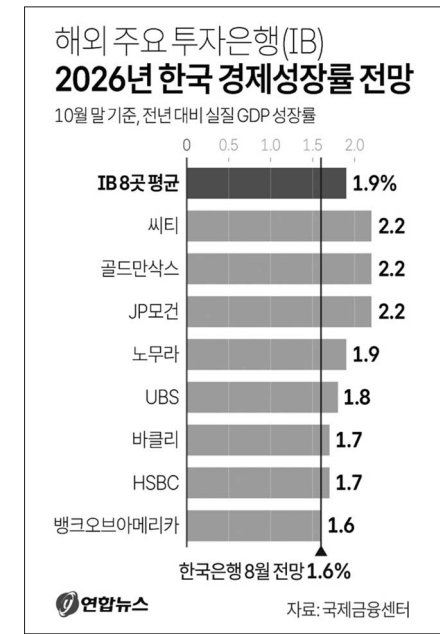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IB들은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9월 말 평균 4.7%에서 지난달 말 평균 5.3%로 크게 높아졌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연합뉴스